

# 作家精神과 現實

丘 仁 煥\*

## 1

現代와 같이 小說의 思想性이 강력히 요구되는 때도 드물다. 그것은 作家는 人生을 觀照하고 再現하는 안이한 說話者가 아니라, 피어린 現實을 超克하여 理想郷을 향하여 내닫는 삶의 指標를 마련해야 하는 人生의 教師나, 휴머니티를 말살하는 現代의 狀況을 초극하려는 인사이드로서의 人間像을 창조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作家는 都市化와 bürokracy(bureaucracy)에 의해 非人間化되어지는 人間狀況을 證言하고 초극의 方向을 제시하여 現代의 위기를 극복해야 함을 말한다.<sup>1)</sup>

小說의 思想性을 강조하게 하는 현대를 危機와 恐怖로 몰아넣는 要因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메카니즘(mechanism)과 拜金主義(mammonism)는 人間性을 말살시키고, 非人間化의 비극을 초래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다.

메카니즘은 科學의 발달과 組織에 의해서 나타난다. 대량생산되는 가공한 파괴력을 가진 原子武器나 中性彈과 人間의 일터를 독점하는 自動化(automation)는 무엇보다 現代의 위기 의식을 더해주는 現象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메카니즘은 게오르그의 「二十五時」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사회적 조직에 의해 휴머니티가 말살되어 가는 일이다. 그것은 都市化와 bürokracy와 函數關係를 이루어 휴머니티의 伸長을 阻害하고 질식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있다.

\* 師大 副教授(國文學專攻)

1) 産業時代인 現代에 있어 都市化에서 오는 疎外意識과 階層間的 갈등, bürokracy에서 오는 文書化, 機械化, 規格化, 期待의 革命에서 오는 教育의 不平等 生活水準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生活과 직결되면서 人間을 압박하는 것은 拜金主義다. 生活의 편의를 위한 交易의 수단이었다던 화폐가 人間 위에 君臨하여 現實을 혼탁하게 하고, 人間을 예측시켜 노예화하고 있다. 社會의 不條理나 非理는 다 이 拜金主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이런 現代에서 小説은 리얼리즘을 絶頂으로 하는 近代小説과 같이 ‘보는 文學’ ‘反映의 文學’에 安住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文學意識이나 技法의 變革에 의한 새로운 現代小説의 領域으로 나타난다. 現代小説은 휴머니즘을 基調로 하여, 메카니즘과 拜金主義에 질식되는 人間條件을 解明하고, 超克하여 삶의 指標를 제시하여 救濟의 文學을 이루게 된다. 그것은 바로 現代小説에서의 思想性的 강조요, 技法의 深化에 의한 感動的 思想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小説의 思想性的 강조는 文學에서의 社會意識의 擴大에 의한 主題意識을 강조한 드레퓌스事件(L. Affaire Dreyfus, 1894~1906)에서 비롯된다. 드레퓌스事件에 대해 졸라(E. Zola)가 ‘나는 彈劾한다’라는 公開狀을 내고 作家들이 그에 참여하고 그 事件을 題材로 小説을 쓴 사실에서 現代小説에서 思想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게 대두하게 된다. 드레퓌스事件이, 小説에서의 技法의 革新을 시도한 프루스트(M. Proust)나 리차드슨(D.M. Richardson), 조이스(J. Joyce) 등의 心理主義小説<sup>3)</sup>과 같이 現代小説의 序曲을 이룬 것도 現實參與에서 비롯되는 小説의 思想性和 技法의 革新에 의한 藝術性的 강조가 現代小説의 主傾向을 이루기 때문이다. 알베레스(R.M. Albrès)의 ‘救濟의 文學’이나 샤프트르의 ‘變化시키는 것을 제시하는 文學’, 시몽(P.H. Simon)의 ‘作家의 聖職者化’ 등은 다 삶의 指標를 제시하여 현대의 위기를 克服하려는 小説의 思想성을 강조하는 경향들이다. 그것은 「現代프랑스文學史」에서 시몽이

2) 이러한 現象은 物質文明을 精神文化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現代의 위기를 말한다. 人間이 만든 컴퓨터에 예측되고 있는 것이 또한 人間이다.

3) 그들은 近代 小説에서 볼 수 없는 ‘意識의 흐름’에 의한 새로운 技法으로 1915년을 전후해서 다음 같이 作品을 發表하고 있다.

M. Proust, 「잃어버린 時間을 찾아서」(1913~1927) 8卷중 처음 2권(1913)

D.M. Richardson, 「人生巡禮」(1915~1938) 12卷 連作중 「숫은 지붕들」(1915)

J. Joyce, 「젊은 藝術家의 肖像」(1916)

作家는 正義에 봉사하고 人間의 심판을 위해 證言하며, 作家는 人間條件의 解明을 위하여 그 改善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 이 世紀初에 드레퓌스事件이란 精神的 危機에 의해서 그 幕을 연 것은 意味가 없는 것이 아니다. 作家는 벌써 자기의 快樂이라든가 讀者의 즐거움을 위하여 쓰지는 않는다. 作家는 봉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sup>4)</sup>

라고 한 말에 集約되어 있다.

여기에서 作家는 歷史의 現實을 透視하고 그것을 作品에 受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作家精神에 의한 現實의 認識이요, 技法에 의한 現實의 形象化이다.

하지만, 現代小說의 思想性を 강조한다고 해서 小說의 藝術性이 輕視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小說의 思想性を 藝術性에 의해서만 비로서 言語藝術로서의 文學作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文學的인 變革은 技法의 革新을 수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小說의 二元性的 基軸을 이루는 作家精神을 再認識하고, 現實의 樣相을 직시하고 있어야 하는 韓國文學의 可能性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 2

作家精神은 文學 本領의 精神으로, 藝術로서의 文學作品을 形象化하는 에티몬(etimon)이다. 그것은 現實을 歷史적으로 透視하고 認識하는 작가의 放出體이며, 受容된 現實을 藝術的 構造로 形象化하여 美를 추구하는 匠人意識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現實을 투시하고 해부하는 날카로운 批評意識과 영원한 美의 황홀에 耽溺하려는 美意識이 그 기저를 이룬다.

現代小說에서 시대의 證人이 될 수 있는 人間像을 識別하는 준엄한 透視力과 그것을 小說化하여 美의 '永遠의 즐거움'에 安住하려는 言語藝術로서의 匠人精神이 요구되는 所以로 作家精神의 二元的인 발로가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來日을 가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作家精神은 創作의 放出體이며 完結體다. 불타는 作家精神은 현실을 透視하고 受容하여 藝術化

4) P.H. Simon(平井啓立譯), L'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contemporaine(紀井圖書店, 1960) pp. 395~8

할 뿐만 아니라, 來日의樂園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美的安住의 경지를 제공하여 人間意識의 영원한 美的 上乘을 가져오게 한다.

作家精神은 思想性を 深化시키려는 意識的인 면과 藝術性を 精華시키려는 技法的인 면에서 서너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人間存在의 解明精神이다.

이것은 人間의 本質을 추구하여 삶의 意味를 定立하려는 精神이다. 결코 火石化된 삶의 意味가 一般化될 수 없는 宿命을 認知하면서도, 집요하게 人間의 本質을 추구하려는 정신이다.

時代나 社會에 따라 人間은 그 本質을 다양하게 나타낸다. 그것은 幸福을 추구하는 人間의 可變스러운 樣相이기도 하다. 그러나, 幸福을 추구하는 삶의 現實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다. 우리는 幸福을 追求하는 人間의 欲求와 그것을 가로막는 障礙物과의 사이에 끊임없는 相剋을 본다. 행복하려는 個人意識과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社會的 制約 사이에 전개되는 상극과 갈등이 빚어지는 人間生活은,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여 個人意識을 추구하려는 欲求와 사회의 秩序를 위해 파생된 慣習이나 倫理 등의 社會的인 規範과 맞부딪게 된다. 그것은 휴머니티를 高調하여 伸長하려는 개인의식이, 규범화하여 一般化된 삶의 方向으로 이끌려는 사회의식과의 상극에서 오는 悲劇으로 나타난다.

作家는 이러한 人間像을 浮刻하여 人間存在의 의미를 解明하려고 한다. 그것은 現實의 透視에 의한 인간의 본질을 해명하려는 作家精神의 所産이요, 社會속에서의 個人意識의 신장을 추구하려는 人間의 解明이기도 하다. 일체의 既成文化나 道德을 부정하고, 이방인으로 彷徨하는 個人意識에 집착하려는 까뮈의 「異邦人」이나, 6·25의 처참한 現實에서, 상이군인 동생 익호, 洋公主인 누이, 만삭이 된 아내, 두고 온 故鄉이 그리워 가자 가자를 외치는 어머니가 둘러싼 外的 要因과 이가 아픈 內的 要因 속에서 人間은 神의 誤發彈임을 認知하여 發生的 悲劇을 보여준 李範宜의 「誤發彈」, 영원히 있을 수 없으며, 또 없을 날개를 갈구하면서 自我를 解體한 李箱의 「날개」, 준태와 성호 인구를 중심으로 지연, 창애, 변씨, 洪女史, 영이 엄마, 전주덕 등의 진지하고도 처절한 삶의 現場을 浮刻시키면서 돌이와 영이의 입을 통해

人生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면서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黃順元의 「움직이는 城」, 그 狀況에서 필요치 않은 餘他的 人間으로서 疎外意識을 씌는 孫昌涉의 「剩餘人間」, 포로수용소라는 極限狀況 속에서의 非情하고 不條理한 生活을 그린 張龍鶴의 「非人誕生」, 의과대학생이 겪은 전쟁속에서의 인간의 의미를 그린 吳尙源의 「白紙의 記錄」 등이 다 人間存在를 해명하여 삶의 意味를 추구한 作品들이다.

作家의 이러한 인간 존재를 解明하려는 정신은, 戰後小説은 좀 다르지만, 時代나 社會는 背景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廉想涉의 「三代」나 卞 줄라의 「루공마카르叢書」에서 보듯이 時代나 社會의 狀況을 風俗史的으로 수용한다. 그것은 사회나 시대가 個人意識의 성장을 방해하는 社會的 制約의 의미보다 살아가는 生活의 環境으로 보는 데서 결과된 것이다.

이 人間存在의 解明精神의 所産을 흔히 純粹文學으로 규정하여 歷史意識이 결여된 溫床의 文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나, 그것은 純粹文學의 개념을 잘못 인식한데서 나온 所論이다.<sup>5)</sup>

둘째는 告發과 指向의 精神이다.

그것은 휴머니티의 伸長을 가로막는 여러 제약과 條件의 證人的인 告發이며, 그날을 추구하고 오늘을 사는 삶의 指標의 제시를 의미한다. 時代나 社會는 小説의 중요한 題材의 의미를 넘어, 그것을 어떻게 透視하고, 내일을 지향하는 人間像을 形象化하는가는 現代小説에서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여러가지 要因으로 現代는 휴머니티가 유린되고 질식되고 있어, 그 狀況을 解明하고 批判하는 告發精神과 樂園을 지향하는 내일을 위해 人間條件을 개선하여 삶의 指標를 제시해야 하는 指向의 精神이 作家精神의 중요한 일면을 차지한다.

드레퓌스事件에서 크게 부각된 小説에서의 告發과 指向의 精神은 文學의

5) 純粹文學의 개념을 解放前의 카프의 逆反應과 植民地 狀況 속에서 나타낼 수 없었던 無思想으로 고정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趙芝薰이 「解放詩壇의 課題」(趙芝薰全集(3) 一志社, 1973, p. 207~210)에 말하고 있듯이 어떤 思想을 수용하는 그것이 藝術化되어 있으면 純粹文學이 규정되어야 한다. 趙芝薰이 “우리가 純粹라고 概念을 고쳐 가져야 할 것은 純粹는 無思想의 것이 아니라 詩를 諷屬시키는 思想이 아니고, 純化된 思想이면 다 純粹詩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라는 말은 這間의 사실을 말한 것이다.

社會參與과 理想郷을 지향하려는 現實의 改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告發이나 삶의 指標의 제시로 行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藝術의 技法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文學 本領의 作品이 된다.<sup>6)</sup> 또한, 告發이나 指向性이 現實을 투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作品 속에 수용되어 感動的 思想으로 정립이 될 때 文學의 偉大性을 지니게 된다.

植民地의 암담한 現實을 尹直員이 오히려 太平天下를 구가하면서 逆說의 으로 살아가는 蔡萬植의 「太平天下」나, 페스트가 번져서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가는 極限狀況에서 랑베에르記者의 社會意識의 각성을 유도하고, 죄수이던 코타아르의 良心의 自覺을 일깨워 주면서, 묵묵히 페스트를 치료하는 醫師를 중심으로 한 페스트 退治隊에 의해서 그 狀況을 극복하여 城門을 여는 까위의 「페스트」, 傳來的 요소인 샤머니즘을 信奉하는 乙火와 外來的 要素인 기독교를 믿는 아들과의 갈등에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金東里의 「乙火」, 식민지하에서나 해방 후 소련 軍정하에서 월남하여서나, 미군정하에서나 임기 應변으로 살아가며 미국에서의 새 生活을 꿈꾸는 李仁國博士의 生活을 그린 全光鏞의 「꺼삐딴 李」,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第3의 길을 택하여 삶의 路를 摸索하는 崔仁勳의 「廣場」 등은 다 告發과 指向的 精神에 의한 社會의식의 各성으로 오늘을 改善하고 내일의 樂園을 지향하는 人間像을 부각시킨 作品들이다. 그것은 社會의식의 擴充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 오늘을 克服하려는 傾向으로 나타난다. ‘救濟의 文學’이나 ‘作家의 聖職者化’는 주로 이런 傾向에서 가능해지며, 文學의 社會的 機能도 이런 傾向에서 더 문제가 된다.

세제는 美意識을 추구하는 匠人精神이다.

그것은 美에 의해 영원에 安住하려는 藝術 추구 의식이며, 미에 탐닉하여 獨創性을 창조하는 精神이다. “眞은 美이며, 美는 眞이다”라고 이룰 수 있는 永遠하고 완벽한 人格에의 美的 追求의 정신이다.

時代나 社會가 변하고, 時代精神이 소용돌이치면서, 그것은 알맞은 技法으로 수용되어 새로운 小說을 이룬다. 疎外와 孤獨의 現代意識을 各각하여 個

6) 藝術의 技法으로 승화된 作品 먼저 感動을 주어서 變化시키고, 그렇지 못한 思想은 說得에 의해 影響을 주려고 한다.

人意識의 내적 세계에 침거하여 全經驗에 의해 새로운 人間像을 창조한 李箱의 「날개」나, 더블린에서의 하루 生活에 전 생애를 投影한 조이스의 「율리시스」 등의 心理主義小說도, 全體驗의 微粒子가 現實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意識의 흐름’을 自由聯想法과 內的獨白을 自動記述法으로 서술하는 技法에 의해 비로소 그 小說이 可能했던 것이다. 宋相玉의 短篇集「魔의 季節」에 나오는 많은 作品이 心理主義小說의 技法에 의해 죽음과 삶의 壁을 넘나든다.

아무리 투철한 意識으로 現實을 투시하고 내일을 指向하는 위대한 思想이라도 그것을 作品으로 形象化하는 技法에 의하지 않고는 文學과는 관련이 없는 사상에 그치고 만다. 그것은 마크·쇼레르가 「發見으로서의 技法」에서

우리가 완성된 內容, 藝術作品을 하나의 藝術作品으로 말할 때만 批評家로서 말하게 되는 것이다. 內容 곧 經驗과 作品으로 되어진 內容 곧 藝術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技法이다.<sup>7)</sup>

라고 말하면서 “技法은 主題인 作家의 經驗이 작가로 하여금 그것에 도달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이다”라고 한 말에 集約되어 있듯이, 現實이나 思想을 小說되게 하는 것은 技法이다.

이 技法은 美意識을 추구하는 匠人精神의 結晶이다. 技法에 의한 완결된 藝術美에 의해 人間存在의 解明이나, 告發과 指向의 精神이 독창성 있는 小說이 된다. 技法에 의한 예술성의 추구를 純粹文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思想性이 결여될 경우만이 문제다. 小說에서 美의 황홀을 추구하는 匠人精神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한갓 敎示的인 思想性만을 제시하여 目的文學으로 저락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는 大衆小說의 경우가 많고, 후자는 小說의 社會的 機能을 주요시하는 觀念小說의 경우에 해당한다. 作家의 匠人精神은 技法으로 小說을 小說되게 한다.

人生과 現實을 해부하고 투시하며 삶의 指標를 제시하는 人間存在의 解明 精神과 告發과 指向의 精神은 미의식을 추구하는 匠人精神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한다. 그것은 美에 의해 영원성을 享有하려는 樂隯이나 완전한 人格에의 접근을 지향하는 유한한 人間의 집요한 노력이기도 하다. 여기에 眞

7) M. Schorer; 「Technique as Discorery」, S. Kumar & K. Mckean; 「Critical Approaches to Fiction」(New york, 1968), p. 267

에 의한 영원성의 추구나 善에 의해 영원에 접근하려는 學問이나 道德과는 달리 美에 의해 永生을 회구하는 藝術로서의 文學의 면모가 있다.

그러므로, 人間存在의 解明은 개인의식의 추구요, 告發과 指向性은 사회의식의 擴張이며, 미의식을 추구하는 匠人精神은 美에의 영원한 憧憬이다. 이러한 作家精神의 所産은 개인의식과 사회의식의 調和에 의한 영원성의 美에 의한 希求로 集約된다.

## 3

다음은 作家精神이라는 放出體에 의해 투시되는 現實의 樣相은 어떠하며, 그것이 小說과 어떤 相關性을 지니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現實은 小說의 題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作家에 의해 투시되고, 소설적 技法에 수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歷史的 意味가 있고, 위대한 思想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素材로 방치되고 말 것이다. 문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現實이 어떻게 小說과 相互應戰의 力學的 關係를 지니면서 소설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더해 주는가에 있는 것이다.

現代小說에서 現實은 사실 소설의 기능의 逆反應을 일으키면서 小說을 硬直시키고, 때로는 題材의 偏向性을 띠우게 하고 있다. 그것은 作家精神의 편향적 고정화에 의한 題材의 경계현상으로 나타나, 小說을 한 패턴 속에 칩거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현대의 위기를 초극하기 위해 小說은 '救濟의 文學'이나 '教師의 文學'이 되어야 하고, 作家는 성직자화해야 한다는 '當爲性'과 小說은 독창적이면서도 위대해야 한다는 指向性의 상충에서 他를 경시하는 데서 벗어났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作家가 투시하고 지향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고 또 도달점으로 볼 수 있는 現實이 어떻게 소설에 受容되는가의 現實의 樣相이 문제된다.

作家가 투시하고 作品에 수용할 수 있는 현실은, 있는 現實과 있어야 하는 現實의 둘로 나누어진다.

첫째, 있는 現實은 歷史的으로 현재에 전개되고 있는, 있을 수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유전하는 삶의 現場이요, 生活의 狀況이다. 또한, 그것은 당대의 의미를 지니고 정지되어 있는 存在의 現實이요, 風俗性을 지니고 社會



의 의미로 투시될 수 있는 共時的 現實이다. 거기에는 歷史意識에 의한 내일의 指向性이 결여되어 있고, 時代의 證人이나 개선을 위한 告發性도 희박하다. 거기에는 流行이 있고, 삶의 희비가 있으며, 背景으로서의 시대나 사회의 風俗性이 있다.

19世紀 전기의 프랑스 上流社會의 모습을 年代記적으로 그린 발작의 「人間喜劇」은 물론이요, 植民地下에서 封建的·開化的·植民地的인 三代가 살아가는 것을 잘 그린 康想涉의 「三代」, 淸溪川을 무대로 生活하는 당시의 풍속을 피카레스크적으로 그린 朴泰遠의 「川邊風景」, 解放된 후의 社會相과 그런 狀況에서 살아가는 現實을 그린 蔡萬植의 「落照」, 필벽의 「大地」, 모라비아의 「倦怠」, 심지어 70年代의 많은 小說도 애로와 商業性으로 전락된, 있는 現實을 受容한 작품들이다.

이러한 있는 現實, 存在의 現實은 指向的으로 현실을 초극하려는 歷史意識에 의한 告發과 指向性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기에 있는 現實은 可變的인 現實이며, 存在로서의 현실이다.

둘째, 있어야 하는 現實은 可變的인 있는 現實을 초극하여 未來指向性에 의해 완성하려는 그날의 현실이다. 그것은 있는 현실의 解剖와 告發, 그리고 초극에 의해 이루어지고 歷史意識에 의해 구성되고 정립되어지는 當爲의 現實이요, 繼時的 現實이다. 있어야 하는 現實은 人間의 영원히 추구해 가는 유토피어이면서도, 당대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이루려는 그날에 이르는 途程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現實이다. 「페스트」의 兪醫師는 페스트를 退治하여 極限狀況을 극복하여 城門을 연 당대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문을 열고 자기 責任下에 자유스러운 生을 향유하려는 역사적 의미로서의 現實을 나타내고 있는데 계시적 현실로서의 意味가 있다.

이 있어야 하는 現實은 그대로 실현되기보다 있는 現實을 作品 속에서 있어야 하는 現實로 창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宗教에서는 殉教로 있는 現實을 있어야 하는 現實로 초극하지만, 文學에서는 낙원의 제시로 그치고 말기 때문에, 창조에 의한 있어야 하는 現實의 가능성만을 보여준다. 토마스·무어의 「유토피아」나, 陶淵明의 武陵桃園이 그렇고, 아나톨·프랑스의 「現代史」나, 로망·롤랑의 「魅惑된 靈魂」은 있는 現實인 드레퓌프事件을 있

어야 하는 現實로 形象化한 것이다. 있어야 하는 現實은 告發과 指向的 精神에 의한 文學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作家가 題材로서 삶의 現場으로 투시되는 現實은 결국 있는 現實, 곧 存在的 現實과 있어야 하는 현실 곧 當爲的 現實의 樣相을 띠우며, 있는 現實은 風俗性을 지닌 小說로, 있어야 하는 현실은 告發과 指向性을 지닌 小說로 形象化된다. 그것은 存在와 當爲의 갈등과 상호응전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두 樣相이다.

그러므로 作家가 투시하고 제시하는 세계는 있는 現實에서 있어야 하는 現實로 끊임없이 變異해 간다. 그것은 있는 現實의 批判이나 告發, 또는 지향하려는 당위의 현실의 途程으로서의 있어야 하는 現實의 제시로 나타난다. 李清俊의 「이어도」는 있는 現實인 이어도 傳說을 물에 있는 주점 이어도에 얽힌 있어야 하는 現實의 완벽한 구조에 의한 제시요, 鍾 작 「山頂의 神話」는 있는 현실에서 있어야 하는 현실의 동경이다. 여기에 現代小說이 歷史意識에 의해 현실을 해부하고 그 改善에 의한 指向性으로 現代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救濟의 文學」의 일면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題材 傾向의 도식적 리얼리즘은 오히려 그 위기를 더할 염려가 있다. 그것은 주제나 제재 傾向에 의한 새로운 메카니즘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 4

現代는 위기와 불안의 時代意識을 지니면서 人間生活은 쉬지 않고 새로운 내일로 流轉한다. 그것은 정체될 수 없는 영원한 한 흐름이다. 인간은 그 흐름 속에서 社會的인 제약의 장애물을 넘으면서 그날의 행복을 추구해 간다. 여기에서 小說은 있는 現實을 있어야 하는 現實로 再構成하면서 人間存在를 解明하려는 文學의 한 本領의 추구와 告發과 指向性으로 完結된 그 날을 위하여 삶의 指標를 제시하는 또 하나의 本領을 추구하여 영원성을 지닌 美의 세계를 동경한다.

앞에서 본 作家精神과 現實의 상호관계와 그것이 小說로 形象化되는 것을 集約시키면

作家는 있는 現實과 있어야 하는 現實을 人間存在 解明과 告發과 指向의 精神으로 무시하여 美意識을 추구하는 匠人精神으로 形象化한다.

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作家精神은 個人意識에 의해 人間존재를 해명하려는 경향과 社會意識에 의해 告發과 指向性으로 삶의 指標를 제시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美를 추구하는 匠人精神으로 융합된다. 그것은 人間擁護의 정신이요, 美의 세계를 추구하고 藝術精神이다.

또한, 作家精神에 의해 무시되는 現實은 있는 現實, 곧 당대의 의미를 지니고 정지된 共時的·存在的 現實과 있어야 하는 現實, 곧 歷史意識에 의해 改善되고 樂園을 지향하는 繼時的·當爲的 現實의 두 가지다. 전자는 風俗性을 지닌 小說로 수용되고, 후자는 낙원에의 指向性을 지닌 小說로 수용된다. 그러기에 作家는 있는 現實 곧 存在的 現實을 무시하는 洞察力과 있어야 할 現實 곧 當爲的 現實을 創造하는 獨創性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作家精神과 現實을 융합하여 藝術美를 지닌 小說을 창조하게 하는 것은 匠人精神에 의한 技法이다. 이 技法은 작가정신에 투시된 現實을 小說이 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방편이다. 小說의 偉大性은 현실을 수용하는 작가정신에 의한 思想에 있고, 小說의 獨創性은 匠人의 技法에 의해 이루어진다. 匠人의 技法에 수용된 獨創性 있는 小說은 그것이 어떤 思想에 기저를 두든 다 純粹小說이다.

그러므로, 人間존재의 解明과 告發과 指向性의 二元的 作家精神의 한 면에 의한 現實的 수용인 社會意識에 의한 小說만이 小說의 전부인 양 강조하는 것이나, 그것을 否定하는 것은 小說의 本領의 한 면만을 강조하는 所論이다. 전자는 文學社會學的인 욕구에서 온 과오요, 후자는 순수문학의 착각에서 온 견해다. 문제는 小說의 技法에 의한 獨創性和 思想的인 수용인 偉大性에 集約되어야 한다.<sup>8)</sup>

作家精神은 現實을 무시하고 초극하여 匠人精神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여 人間存在를 解明하고 삶의 指標를 제시한다. 小說의 文學性도 결국 여기에서 문제된다.

8) 這間의 '純粹와 參與'의 論爭도 이런 과오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 金鵬九：作家와 社會，一潮閣 1974.
- 白 鐵：新文學思潮史，新丘文化社 1972.
- 趙演鉉：韓國現代文學史，人間社 1968.
- 金允植，김 현·韓國文學史，民音社. 1973.
- 金宇鍾：韓國現代小說史，成文閣. 1978.
- 趙芝薰：趙芝薰全集(3)，一志社. 1973.
- W. Kenny: *How to Analyze Fiction*, N.Y. 1966.
- R. Scholes: *Structuralism in literature*, N.Y. 1973.
- J. Rockwell: *Fact in Fiction London*. 1974.
- S.N. Grebstein: *Perspectives in Contemporary Criticism*, N.Y. 1972.
- S. Kummar & K. McKean: *Critical Approaches to Fiction*, N.Y. 1968.